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발췌 본문에 대한 연구

- 창세기를 중심으로 -

임동원*

1. 서론

금번 대한성서공회에서 계획한 어린이 성경 번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발췌 번역을 전제로 했을 때 구약성서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성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발췌 본문을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제시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제는 기간과 인력을 고려해 볼 때 본인에게 힘이 부친 과제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여기에는 성서학자(구약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번역할 바에는 완역이 이상적이지 않겠나 하는 바램도 포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는 (그것이 중복되는 기사까지라도) 각각의 독특한 의미가 깃들여 있어 어느 부분을 제외시키기가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어린이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완수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았을 때 대개는 발췌 번역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 따라서 이번에 계획중인 대한성서공회의 어린이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서도 발췌 번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결국 번역에 포함될 본문 선정이 중요 관건으로 등장하는 셈이다. 그런데 구약성서에서부터 신약성서에 이르기까지의 본문 선정 과제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본인의 능력 밖의 엄청난 과제이다. 본인은 구약학자로 신약에는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본문 선정은 컬리큐럼에 관계된 것으로 이는 교육학자들도 참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췌 본문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구약성서 가운데 창세기만을 표본으로 하여 다루기로 한다. 우선 신약성서가 아닌 구약성서를 표본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본인은 구약학자로서 신

* 목원대학교 교수, 구약학.

1) 기존의 어린이 성경 가운데 몇 종류(대표적인 것으로 *Holy Bible :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을 들 수 있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췌 번역을 따르고 있음.

약성서보다는 구약성서에 대해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았고 둘째, 발췌 번역의 불가피성이 신약성서보다는 구약성서가 훨씬 더 농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약성서보다 구약성서에는 독자를 괴롭히는 많은 사안들 -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 중복되는 정보, 폭력과 성적인 표현 등 - 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구약성서 가운데 창세기를 표본으로 삼은 이유는 창세기는 구약성서의 첫 번째 책일 뿐만 아니라 발췌 본문 선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속사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발췌 본문 선정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라 창세기를 발췌 번역했을 때 꼭 포함시켜야 될 본문을 제시하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에서 이미 번역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는 세 종류의 어린이 성경 -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ICB로 표기하도록 한다), *The Good News Children's Bible*(GNB로 표기하도록 한다), *The Children's Daily Devotional Bible*(CDB로 표기하도록 한다) -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 분석에는 세 가지 성경의 일반적인 특징, 번역, 그리고 발췌 본문이 비교될 것이다. ICB, GNB, CDB를 표본으로 삼은 주된 이유는 이 어린이 성경들이 대본으로 삼은 역본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ICB는 *New Century Version*을, GNB는 *Today's English Version*을, 그리고 CDB는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각각 그 대본으로 삼고 있다.²⁾

세 종류의 성경을 분석하고 나서 창세기의 발췌 본문이 제시될 것이다. 발췌 본문 선정에는 구속사와 본인의 관심사인 문학비평(Literary Criticism)적 시각에서 본 창세기의 구조 분석이 중요 원칙으로 작용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2. ICB, GNB, CDB의 비교

2.1. 일반적인 특징

2.1.1. ICB

ICB는 서문에서 이 성서가 단순히 '성서 이야기 책'(Bible storybook) 혹은 '예쁜 그림과 좋은 커버를 지닌 성인-언어 성경'(adult language Bible) 그 이상임을 표방

2) 필자가 실제로 조사한 바로는 ICB는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New Century Version*을, GNB와 CDB는 발췌 본문 모두가 *Today's English Version*과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각각 그대로 준수하고 있었다.

하여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첫 번째 성서 번역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전제하에 ICB는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성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 “성서의 작품 대부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³⁾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번역을 수행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점으로 “어린이들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언어를 단순하게 만들었음”⁴⁾을 들고 있다. 서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ICB의 가장 큰 특징은 읽기 수월성(readability) 혹은 명료성(clarity)이라 할 수 있다.⁵⁾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ICB는 수사학의문문(Rhetorical questions), 수사법(Figures of speech), 속어적인 표현(Idiomatc expressions) 등을 가급적 배제시켜 쉬운 표현을 쓰고 있다. 예컨대 “누가 우리 하나님과 동일할 수 있겠는가?”,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열조와 함께 자다”라는 표현들을 각각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풍요로운 땅”, “죽다” 등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2.1.2. GNB

GNB는 소개 글에서 이 번역 성서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마련된 완벽한 첫 번째 성서라고 밝히고 있다.⁶⁾ 아울러 소개글은 GNB가 이제까지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던 다른 성서들과는 달리 성서에서 재차 말해진(retelling) 이야기가 아닌 실제 성서(real Bible)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GNB는 친숙한 현대 언어로 말미암아 학자들과 평신도들에게 각광을 받았던 *The Good News Bible*로부터 발췌된 본문이다. 이러한 발췌 본문 이외의 GNB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안된 장면 설정(Scene-Setting)에 대한 소개(GNB는 구약 성서에서 여섯 번, 신약 성서에서 여덟 번의 장면 소개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는 두 번의 장면 소개가 나타난다), 낯선 단어와 표현에 대한 설명, 문화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에 대한 정보, 지도와 색인집 수록, 80개의 삽화를 들 수 있다.

2.1.3. CDB

3) Harm W. Hollander, "A Children's Bible or the Bible for Children?" *The Bible Translator* 37 (1986년 10월), 423.

4) ICB의 서문.

5) 구체적인 ICB의 읽기 수월성 테스트에 대해서는 Martin W. Pyle, "The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 : A Bible Even a Child Can Read," *Restoration Quarterly* 33(1991), 87-96을 참고할 것.

6) ICB도 어린이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첫 번째 번역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완역 번역 성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GNB가 어린이를 위해 마련된 완벽한 첫 번째 성서라고 한 것은 평이하게 풀어 쓴 의역(paraphrase)이 아닌 실제 발췌 번역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CDB는 소개 글에서 이 성서 번역이 6세-11세의 어린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서 정경의 순서대로 엮어진 260개의 성경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각색이나 의역이 아닌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따른 실제 본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성서의 구성이 우리의 눈길을 끌게 하는데 그것은 1년을 52주로 나누고 각 주마다 5개의 이야기를 수록함으로써($52 \times 5 = 260$)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꾸며졌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 성서의 이름인 *The Children's Daily Devotional Bible*에서도 암시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 성서에는 어린이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 생활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송 구절'(memory verse)과 '기도문의 시작'(prayer starter)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암송 구절'은 어린이로 하여금 중요한 교훈이 기억되도록 한 개의 중요 요절이 점차 단어가 첨가되는 방식으로 5일 동안 반복되고 있으며 '기도문의 시작'은 그 날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매일 다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52개의 '암송 구절'과 260개의 '시작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이 성경에는 연대기 순으로 정리된 성경 인물 명단(아담에서부터 빌레몬까지)이 그 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2.2. 세 성경의 번역 비교

2.2.1. 번역 이론에 따른 비교

뉴먼(Barclay M. Newman)은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정확성(accuracy), 명료성(clarity), 수용성(acceptability), 선택성(selectivity), 감수성(sensitivity), 경제성(economy), 심상(imagery)의 7가지를 들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 (1) 정확성 : 원문에 따른 원래 의미로의 충실성
- (2) 명료성 : 의미의 분명성
- (3) 수용성 : 독자들의 선호도
- (4) 선택성 : 본문 선택
- (5) 감수성 : 불필요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단어, 표현의 최소화
- (6) 경제성 : 사용 단어의 최소화
- (7) 심상 : 운(rhyme), 리듬(rhythm), 이미지(image) 고려 등이다.⁷⁾

다음은 창세기 1장 1절-8절까지의 세 종류의 성경 본문들이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sky and the earth.

The earth was empty and had no form. Darkness covered the ocean, and God's Spirit was moving over the water.

T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So he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God nam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night." Evening passed, and morning came. This was the first day.

Then God said, "Let there be something to divide the water in two!" So God made the air to divide the water in two. Some of the water was above the air, and some of the water was below it. God named the air "sky." Evening passed, and morning came. This was the second day.

(ICB)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the earth was formless and desolate. The raging ocean that covered everything was engulfed in total darkness, and the power of God was moving over the water. Then God commanded, "Let there be light" - and light appeared. God was pleased with what he saw. Then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he nam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Night". Evening passed and morning came - that was the first day.

Then God commanded, "Let there be a dome to divide the water and to keep it in two separate places" - and it was done. So God made a dome, and it separated the water under it from the water above it. He named the dome "Sky." Evening passed and morning came - that was the second day.

(GNB)

In the begi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earth was barren, with no form of life, it was under a roaring ocean covered with darkness. But the Spirit of God was moving over

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Barclay M. Newman, "Some Features of Good Translation for Children," *Bible Translator* 38 (1987년 10월), 411-418을 참고할 것.

the water.

God said, "I command light to shine!" And light started shining. God looked at the light and saw that it was good. He separated light from darkness and nam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Night." Evening came and then morning - that was the first day.

God said, "I command a dome to separate the water above it from the water below it."

And that's what happened. God made the dome and named it "Sky." Evening came and then morning - that was the second day.

(CDB)

이 본문들을 뉴먼의 번역 이론 가운데 지금 당장 분석이 가능한 정확성, 명료성,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단 이러한 번역 분석은 이 논문의 주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언급하기로 한다.

1절 : ICB와 CDB의 번역은 비슷한데(heavens와 sky만 다르다) GNB의 번역은 독특하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2절 : · 땅은 비어 있었고 형체가 없었다. 어두움이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그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ICB).

· 땅은 형체가 없었고 황폐했다.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성난 바다는 칠흑같은 어두움 속에 휩쓸려 있었고 하나님의 힘은 그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GNB).

· 땅은 황폐했고 어떠한 형체도 없었으며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포효하는 바다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그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CDB).

4절 하반절 : ICB, GNB, CDB 모두 하나님께서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셔서(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 ICB는 separated 대신에 divided 사용)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6절 : "Let there be something to divide the water in two!"(그 물을 둘로 나눌 수 있는 무엇이 있으라 : ICB)

Let there be a dome to divide the water and to keep it in two separate places"(그 물을 나누어 두 개의 분리된 곳에 보존하기 위한 궁창이 있으라 : GNB)

"I command a dome to separate the water above it from the water below it."(궁창 아래의 물로부터 궁창 위의 물을 분리시키도록 궁창에게 명하리라 : CDB)

비록 몇 개의 짧은 예문들이지만 각 성서의 특징을 비교해 보기에는 어렵지 않다. 우선 예문에서 보듯이 ICB는 짧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적인 곳은 6절인데 GNB가 17개, CDB가 15개의 단어를 할애하고 있음에 비해 ICB는 단 10개의 단어만을 할애하고 있다) 쉬운 단어들 사용되고 있다(1절 : heavens 대신에 sky, 2절 : GNB의 desolate, CDB의 barren 대신에 empty 등). 따라서 ICB는 명료성과 경제성은 뛰어나지만 정확성은 뒤진다고 할 수 있다(6절의 rūqī'a를 something으로 번역한 것은 결정적).

GNB는 독특한 번역을 구사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 있는 1절의 번역 이외에도 6절의 번역을 들 수 있겠다. GNB는 to keep(보존하기 위해) 이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있다. 보다 합리적인 번역을 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 반해 GNB는 경제성에서는 뒤진다고 할 수 있다. 창 1:1-8까지의 위 예문에서 ICB는 130개의 단어를 CDB는 124개의 단어를 할애하고 있음에 비해 GNB는 무려 136개의 단어를 할애하고 있다.

CDB는 위 본문에서만 본다면 정확성, 명료성, 경제성이 무난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특수한 목적(어린이용 경건 생활 지도용)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틀에 박힌 편집(260개의 이야기)이 우리에게 큰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첨가시키고 싶은 것은 4b의 번역이다. 본문에 대한 세 성서의 번역대로 한다면(어두움으로부터 빛을 분리시켰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빛과 어두움이 두 개의 분리된 장소에 놓여진 두 개의 사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분리는 공간적 개념(장소)이 아닌 시간적 개념(시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셨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2.2.2. 운문과 산문의 번역 문제

왓츠(James W. Watts)는 히브리 성서의 설화체 문맥에서 발견되는 시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설화가 묘사하는 행위에 직접 참여하도록 끌어들이며 더 나아가 이 시는 독자들의 신앙과 삶에 권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라⁸⁾고 했거니와 창세기에서 시로 표현된 부분을 몇 군데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James W. Watts, "Psalms in Narrative Contexts of the Hebrew Bible"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90), p. 279

선악과를 따 먹는 범죄를 저지른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 선언인 3:14-21 부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본토와 친척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내리실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인 12:3 부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27:27b-29)과 이삭이 에서에 대해 부정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27:39-40), 수태한 라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25:23) 등이다.

그런데 ICB는 이 부분들이 시로 처리되어 번역되었음에 비해 GNB나 CDB에서는 거의 산문처리가 되고 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문학적인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구약성서는 운문과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5경과 역사서는 산문체이고 예언서, 시가서, 지혜서 등은 운문체이다. 운문체(시)가 갖는 이점 때문에 성서 저자들은 시가서는 물론 예언서나 지혜서 등에서 그리고 산문체 문맥 속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을 운문체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운문체가 갖는 가장 큰 이점은 초역사성과 다의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들어 보자.

- | | |
|---|--|
| 4. 학대하던 자가 어떻게 그쳤으며 |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
| 5. 주께서 사악한 자들의 지팡이와 | 지배자들의 막대기를 꺾으셨도다 |
| 6. 그들은 분내어 민족들을 치되 | 무자비하게 가 격 하였고 |
| 그들은 열방을 진노로 지배하여 | 아낌없이 그들을 쓰러뜨렸도다 |
| 7. 이제 온 땅이 고요하고 조용하며 | 노래를 발하도다 |
| 8. 상록수들과 레바논의 백향목이 | 너로 인해 기뻐하여 |
| “네가 넘어 쓰러워졌은즉 | 나무꾼이 우리에게 올라 올 수 없도다” 하 |
| · · · · | 는도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새벽의 아들 광채나는 자여,
열국의 주인이여, | 어찌 너는 하늘로부터 떨어졌는고
어떻게 너는 배임을 당해 땅에 떨어졌는고" |
| 13. 한때 너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 내가 북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의
회의가 열리는 산에 있으리라 |
| 14. 내가 구름의 꼭대기로 올라가 | 가장 높은 자와 견주리라" |
| 15. 그러나 너는 입구에 가장 멀리 떨어진 | 음부의 맨 밑에 떨어졌도다 |
| 18.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 영광스럽게 자신들의 무덤 속에 누워있건만 |
| 19. 너는 무덤에서 내어 쫓겨 칼에 찔려 살
해당해 주검에 에워싸여 있으니 |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돌구렁이에 빠져
있는 밝힌 시체와 같도다 |

20. 너는 땅을 황폐화 시켰고
너는 무덤 속에서

너의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어울릴 수 없을 것이다
(이사야 14:4-20)

이 시는 만가의 공식(“어찌하여...”)과 만가의 음률(3:2 박자)로 시작된다. 물론 이것은 조롱의 만가이다. “학대하던 자”라는 명칭으로 시작함으로써 시인은 제국의 권위인 왕권을 노예 감독자의 곤봉이나 채찍으로 동화시킴으로써 죽은 왕을 지배자로 보다는 열국을 가격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 시에 언급된 왕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산문으로 기록된 서론의 지시에 따라 바벨론 군주로 취급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 묻히지 못한 사르곤 같은 앗시리아 왕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암살당한 산헤립이라고도 한다. 이 왕이 누구를 가리키든지 간에 그리고 예언자가 어떤 특별한 왕이나 이미 완성된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었는지 두지 않았는지 간에 기독교 전통은 이 시에 등장하는 “새벽의 아들 광채나는 자”(15행)를 루시퍼로 해석함으로써 이 시의 요점을 잡아 이 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의 반역에 대한 기사로 본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완벽하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마귀론이 아닌 역사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의 신화적인 여운은 강조될 만하다.

한편 이 시는 수직적인 움직임이 정교하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려가고 그 다음은 올라가며 그 다음은 다시 내려간다. 자연 세계의 상록수 나무와 백향목 나무는 한때 포위 공격, 토목 공사 등으로 산림을 황폐했던 폭군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나무꾼이 더 이상 자신들을 베려 올라오지 못할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 대신에 그 폭군은 “베임을 당해 땅에 떨어져” 음부 가장 깊은 곳으로 던져졌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군은 하늘에 올라가 신들의 회의에 참석하려는 오만한 상상을 하지만 결국 다시 음부에 떨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도 그의 영혼이 전혀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로 말이다.

이 시점에서 시인이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던 왕이 사르곤인지 산헤립인지, 아니면 그 밖의 인물인지 하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일이다. 분명한 것은 이 시의 언어는 이 왕을 스스로 신격화함으로써 스스로 매혹되는 지상의 권력에 대한 원형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인이 폭군을 조망한 우주적 전망으로부터 그 폭군의 일대기는 어떻게 사람이 권력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등으로 실패하게 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명이 어떻게 황폐화되는가 하는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즉 이 시는 초시간성(초역사성)의 특성을 소유하게 된다.9)

운문과 산문이 가져오게 되는 해석의 차이를 위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14. 시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저버리시며
 15. 여인이 그 자식을 잊었으며
 그녀는 잊을지라도
 16. 보라, 손바닥에 나는 너를 새겼고
 17. 너희 자녀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오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8.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너의 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파괴자와 황폐자들은 너를 떠나
 너희는 그들을 보석처럼 몸에 차
 19. 네 황폐와 네 파멸과
 이제는 정착자들로 붐비므로
 20. 의지를 잃었던 듯이 보이던 네 자녀들이
 “이 곳이 너무 붐비니
 21. 그러면 너는 내 심중에 이르기를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자포자기하던 때에
 나는 홀로 남아 있었는데
 22.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족들에게 나는 나의 기를 들리라
 품에 안아 가져 올 것이며
 23. 열왕은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될 것이며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며
 24. 그러면 너는 내가 주님인 줄 알리라

나의 주인께서 나를 잊으셨다.”하도다
 그의 태에서 나온 아이를 거절하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희 파괴자와 황폐자들은 너를 떠나리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오느니
 “나의 삶으로 약속하노니
 신부처럼 될 것이다.”
 네 황무지로 남아 있던 땅이
 너희 파멸자들이 멀리 떠나리라
 네 귀에 말하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정착케 하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그리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고?
 이들은 어디서부터 생겼고?”
 보라 내가 열방에게 나의 손을 들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네 아들들을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지체 높은 여자들은 그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다
 네 발에 먼지를 그들이 핥을 것이다
 나에게 희망을 가지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49:14-23)

이 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과 자녀를 잃은 여인으로서 말씀을 받고 있으며 또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인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 갖는 사랑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9) 운문이 갖는 초역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 Basic Books, 1985) 제 4장을 참고할 것.

만일 이러한 회복의 예언이 시가가 아닌 산문으로 전달되었다면 어떤 차이점이 나타날까? 이 시가 예언적인 산문으로 대치된다면 다음과 같이 번역될 것이다.

주께서 선포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그들의 힘이 도중에 방해를 받아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채 포로로 잡혀갔던 네 자녀들이 기뻐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 압제자들은 너희 가운데서 도망칠 것이고 네 백성들은 원래의 땅을 돌려 받아 파괴되었던 성읍을 세우고 황폐했던 곳에 경작지와 포도원을 일구리라. 나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땅에 거하게 하리니 나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겠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되돌아오게 할 때 열방은 그들에게 공물을 가져올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산문 번역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관심, 추방으로부터의 기쁜 귀환, 적의 도주와 열방의 이스라엘에게로의 추종, 황폐된 땅의 재건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산문 번역 속에는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으로서의 시온의 상징적인 모습과 주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 시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확고한 사랑의 표명이 빠져 있다. 이 시의 감정적인 효과에 기여하는 모태, 가슴, 젖가슴과 같은 밀접한 생물학적인 언급도 산문 속에서는 빠져 있다. 또 희망이 없었던 여인이 자기의 어린이들이 살아서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과 지상의 섭정자들이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고 보살핀다는 사실을 갑자기 발견하게 되는 시온으로의 귀환에 따른 기적적인 놀라움의 감도도 빠져 있다. 산문 번역의 광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명백하게 역사적이다. 즉, 산문 번역에서 볼 때 화자가 청중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려는 것들은 우리들이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와 우리의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좋은 일들이다. 물론 이와 동일한 미래의 사건들은 위에 인용된 실제로 쓴 시 속에서 언급되는 대상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력한 상징 언어를 통하여 역사적인 광경은 그것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장면의 의해 변형-거의 대치-되어진다. 유배된 유대인들에게 희망찬 미래에 관한 고무적인 연설을 전달하는 필사 대신 우리는 이 시 속에서 최고로 완성된 상상적인 사랑의 법령이기도 한 국가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행복에겨워 자기 자녀들을 껴안는 어머니,-이 시에는 신부가 보석을 차듯이 아이들로 몸을 치장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어머니의 모성애보다도 더욱 확고하게 그녀에 대해 사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시행의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움은 이 시가 쓰여진지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빛 바래지 않은 채 생생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2.3. GNB와 CDB의 발체 본문 비교

GNB (Today's English Version)

2.3.1.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다.

태초에

창조 이야기(1:1-2:3)

에덴 동산(2:8-9, 15-17)

인류가 범죄하다

첫 번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3:1-13, 22-23)

가인과 아벨(4:2-7)

“네 아우가 어찌 되었느냐?”(4:8-14,16)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어찌하여 내가 이 백성들을 만들었는가?”(6:5-8)

노아(6:9-22)

“배 안으로 들어가라!”(7:1-5, 7-10, 11-24)

마른 땅이 나타나다(8:1-12, 13-22)

약속과 징표(9:8-17)

2.3.2.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다

민족의 시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12: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다(22:1-18)

이삭의 아내 구하기(24:1-28)

형제 사이의 경쟁

에서와 야곱(25:24-34)

야곱이 이삭을 속이다(27:1-41)

야곱의 꿈(28:11-22)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다(32:24-31)

요셉

요셉과 그의 형제들(37:1-35)

애굽에서의 요셉(41:17-46)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놀래키다(43:29-34)
베냐민과 잃어버린 컵(44:1-34)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다(45:1-20, 25-28, 46:5-7)

CDB(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창조 이야기(1:1-16)
짐승과 사람(1:24-2:4)
첫 번째 죄(3:1-13, 20-24)
가인과 아벨(4:1-11)
노아(6:5-22)
대홍수(7:1-12, 17-24)
새로운 시작(8:1-17)
무지개(9:1-2, 8-19)
아브람(11:26-12:9)
롯의 선택(13:1-18)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15:1-6, 17:1-8, 15-16)
아브라함을 찾아 온 손님들(18:1-14)
소돔과 고모라(19:1-2a, 12-16, 23-26)
하갈의 아들(21:1-3, 9-21)
시험(22:2-3, 6-14)
이삭의 아내(24:9-20)
야곱과 에서(25:19-22a, 22-24)
야곱과 라헬(29:1-20, 22-24)
야곱의 이름이 바뀌다(32:1-8, 16-23)
은 20(37:12-13, 17b-20, 23-28, 39:1)
왕의 꿈(41:1-4, 8, 14-16, 29-31, 33-38)
요셉이 총리대신이 되다(41:39-49)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42:1-2, 6-8, 45:3-5)
내 아들이 살아 있다니!(45:17-18, 45:21-46:7a)

위의 발췌 본문에서 보듯 GNB는 창세기를 두 개의 장면 설정(Scene-setting) 소개('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다'는 이에 해당한다)¹⁰⁾ 아래 여섯 개의 주제 제목으로 나누고 여섯 개의 주제 제목 아래 다시 몇 개의 소

제목으로 나누고 있으며 CDB는 주제 제목 없이 소제목만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GNB와 CDB 모두 창세기의 구조 분석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본문이 발췌되었고, 무엇보다도 본문 선정 원칙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3. 창세기의 발췌 본문 예시

3.1. 본문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위에서 보듯이 이미 번역되어진 GNB와 CDB는 본문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제시되지 않은 채 본문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췌 본문 선정에 앞서 본문 선택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칙이 있겠지만 적어도 다음의 다섯 가지는 지적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1) 특별한 성서 책(biblical book)의 주제나 목적을 드러내는 구절(예: 창세기의 경우 창조 이야기).

(2) 기독교 공동체에서 널리 알려져 이미 대중성을 확보한 구절.

구약의 경우에는 신약에서 언급되는 구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예: 창세기의 경우 아브라함의 언약, 모리아 산의 번제 사건 등).

(3) 선택된 구절은 가급적 히브리 본문에 부합되는 장르로 번역되어야 한다. 성서 안에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어린이 성서는 설화 자료의 구절들에만 국한시켜 번역하며 때로는 운문 자료를 설화로 대치시켜 번역하는데 성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선택된 구절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어린이 성경에서 의도되고 있는 독자는 보통 만3세-만12세 정도의 어린이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① 문화적인 문제-특히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는 구절(예: 창세기 38장).

② 너무 복잡하거나 심오한 신학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구절.

③ 강탈이나 약탈과 같이 처참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구절.

(5) 선택된 구절들 사이에는 어떠한 일관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 일관성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구속사일 것이며 만일 구속사라면 신26:5-10, 29:5-38, 행7장에서 언급된 사건들과 인물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0) GNB의 장면 설정 소개에 대해서는 본 논문 2.1을 참고할 것.

3.2. 창세기의 구조 분석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여기에서는 창세기의 발췌 본문을 위해서 문학 비평적 시각에서 창세기의 구조 분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창세기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왔다.

태고사(Primeval History): 1-11장

아브라함 이야기(Abraham Cycle): 11:27(12:1)-25:11

(이삭-)야곱 이야기(Isaac-Jacob Cycle): 25:12-36:43

요셉 설화(Joseph Narrative): 37-50장

이 구조 속에서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족장들의 전설 수집서 등으로 분리된 채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문체, 주제 단어의 사용, 주제적인 줄거리의 전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도식 등에서 구조적인 일관성이 상존한다. 문체면에서 네 개로 나뉘어진 각 부분은 바로 앞의 부분보다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매끄러워진다. 예컨대 태고사 부분은 짧은 단편들(short fragments)과 (특히 4-6장) 좀 더 긴 설화(longer narratives)로 (에덴동산 설화, 홍수 설화 등) 조합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Abraham Cycle)는 좀 더 발전된 초상화(vignettes)이며, 야곱 이야기(Jacob Cycle)는 좀 더 일관성 있는 전기(biography)이고, 요셉 설화(Joseph Narrative)는 자체적으로 통합된 이야기(tale)이다.¹¹⁾ 뿐만 아니라 각 부분은 바로 앞의 부분보다 더 길게 기술되어 있다. 즉 창세기는 속사포적으로 연이은 이야기들의 혼합으로부터 좀 더 지속된 설화로 움직여 나가다가 요셉 설화(37-50장)에서 정점을 이루어 집중되는 것이다.

또 창세기에는 *tôledôt*과 *brk*라는 주제 단어가 주기적으로 사용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tôledôt*은 창세기 전체의 중추로서 작용한다.¹²⁾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의 반복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와 연결시킨다.¹³⁾ 다시 말해

11) 전통적으로 요셉 설화에 불협화음처럼 여겨져 왔던 창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어떻게 요셉 설화에 부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Judah Goldin, "The Youngist Son or Where Does Genesis 38 Belong," *JBL* 96 (1977) : 27-44, Everett Fox, *In the Beginning* (New York : Schocken, 1983),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 Basic Books Inc., 1981), 제 1장을 참고할 것.

12) Martin Buber, *On the Bible* (New York : Schocken, 1963), pp25-26.

태고사를 족장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의 절반이 태고사에 등장함으로써 태고사를 창세기에서 따로 떼어 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불식시킨다. 이 *tôledôt*이외에 *brk*도 창세기에서 중요한 주제 단어를 형성한다. *tôledôt*와 마찬가지로 *brk*도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26,28절)에 처음 언급된 이래 노아의 홍수 후 창조의 갱신에도 사용되었으며(9:1), 아브라함 이야기(Abraham Cycle)는 이 단어가 4번 사용됨으로 시작되고(12:1-3), 야곱 이야기(Jacob Cycle)는 이삭에게서 전수 받는 축복 문제에서 성립되며(27장), 요셉 설화(Joseph Narrative)는 바로 이 단어로 종결된다(48:9,15,16; 49:25-26).

창세기에는 각 부분을 서로 연결시키는 의도적으로 고려했음직한 주제의 흐름이 반복되어진다. 아브라함 이야기(Abraham Cycle)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태고사(Primeval History)의 중심 인물인 노아를 그대로 반영한다. 예컨대 이 둘은 똑같이 여호와와의 언약 수여자였으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했고 각각의 성품에 적용되는 형용사가 똑같다(*'šaddîq*: '의로운, *'tāmîm*: '완전한). 야곱 이야기(Jacob Cycle)의 주인공 야곱과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인공 아브라함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똑같이 애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두었고 꿈 속에서 여호와와 접촉했으며, 성소와 관련되고,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방황의 경험을 지낸다. 요셉설화(Joseph Narrative)의 주인공인 요셉과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 야곱 사이에도 유사성이 상존한다. 예컨대, 형제들 사이의 불화, 출생 순서를 무시한 사랑 받는 아들의 위치, 고향을 떠나 어른으로서 성공한 점, 아버지가 기만당한 사건의 당사자라는 점, 결국 형제를 직면하게 되고 화해한 점 등이다.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A 선택된 인물(노아 : 6:8-9)
태고사	B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호하심(아벨 : 4:4);
(Primeval History)	증오(가인-아벨 : 4:5-6)
	C 가계 존속이 위협 당함(아벨이 살해됨 : 4:8)
	D 죽음 기사(하란, 데라 : 11:27-32)
	E 인류가 위협 당함(대홍수; 7:21-23에서 <i>Kol</i> 의 반복 사용)
	F 가나안 땅을 떠남(하란으로 : 11:31)

13) Karin R Andriolo, "A Structural Analysis of Genealogy and Worldview in the Old Testament," *American Anthropologist* 75 (1973), 1657-69 참고.

14) Everett Fox, "Can Genesis Be Read as a Book?" *Semeia* 46 (1989), p. 36. 특히 태고사(A), 아브라함 이야기(B), 야곱 이야기(B), 요셉 이야기(A)가 대차구조(chiasmus)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아브라함 이야기
(Abraham Cycle)
- A 선택된 인물(아브라함 : 12:1-3)
 - B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호하심(이삭 : 21:12);
증오(사라-하갈 : 21:10)
 - C 가계 존속이 위협 당함(사라의 불임 : 16:1; 이삭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감 : 22:9-10)
 - D 죽음 기사(사라, 아브라함, 이스마엘 : 23장, 25장)
 - G 불임의 아내(사라 : 16:1)
 - H 아내를 누이로 가장하는 사건(12장과 20장)
 - I 아내들 사이의 경쟁(사라-하갈 : 16:4-5)
 - J 영웅의 이름이 바뀜(아브라함 : 17:5)
 - K 선택되지 못한 자의 죽보
(이스마엘 : 25:12-18)

- 야곱 이야기
(Jacob Cycle)
- A 선택된 인물(야곱 : 25:23)
 - B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호하심(야곱 : 25:23);
증오(에서-야곱 : 27:41)
 - C 가계 존속이 위협 당함
(야곱이 거의 죽게 됨 : 34:30)
 - D 죽음 기사(드보라, 라헬, 이삭 : 35:16-29)
 - G 불임의 아내(라헬 : 29:31)
 - H 아내를 누이로 가장하는 사건(26장)
 - I 아내들 사이의 경쟁(레아-라헬 : 30장)
 - J 영웅의 이름이 바뀜(야곱 : 32:28)
 - K 선택되지 못한 자의 죽보(에서 : 36장)

- 요셉 이야기
(Joseph Story)
- A 선택된 인물(요셉 : 39:2)
 - B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호하심(요셉 : 39:2);
증오(형들-요셉 : 37:4)
 - C 가계 존속이 위협 당함
(요셉이 거의 죽게 됨 : 37:18-24; 유다 아들들의 죽음
: 38:7-10; 가계가 기근으로 거의 죽게 됨: 42:1-2)
 - D 죽음 기사(야곱, 요셉 : 50장)
 - E 인류가 위협 당함(기근; 41:54-57에서 *Kol*의

반복 사용)
F 가나안 땅을 떠남(이집트로 : 46장)

3.3. 창세기의 발췌 본문의 예

천지 창조와 첫 번째 사람들의 불순종(1:1-4:16)

창조 이야기	1:1-2:4 ^a
첫 번째 사람들의 불순종	3:1-24
가인과 아벨 이야기	4:1-16

노아 이야기 : 대홍수(6:5-9:17)

큰 배	6:5-22
홍수가 나다	7:11-24
홍수가 그치다	8:1-19
노아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9:1-17
바벨탑	11:1-9

아브라함 이야기 :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12:1-7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다	13:8-18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17:1-2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심	18:1-15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18:23-33
소돔과 고모라	19:1-2, 12-16, 23-26
이삭의 탄생	21:1-8
모리아 산의 번제	22:1-19
이삭의 아내	24:2-33, 49-67

야곱의 이야기 : 많은 민족의 조상(25:20-35:15)

에서와 야곱의 출생	25:20-34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다	27:1-30a
야곱이 에서로부터 달아나다	27:41-28:4

벧엘에서의 야곱의 꿈	28:10-22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다	29:1-14a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하다	29:14b-23, 25-28,30
야곱이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다	32:1-21a
야곱이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32:22-31
야곱이 에서와 만나다	33:1-20
하나님이 벧엘에서 야곱을 축복하다	35:9-15

요셉 이야기 : 총리대신이 된 노예(37:2b-50:26)

요셉과 그의 형제들	37:2b-11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37:12-36
요셉이 애굽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다	40:1-23
애굽 왕의 꿈과 요셉의 해석	41:1-36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다	41:37-57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다	42:1-38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에 가다	43:1-34
사라진 잔	44:1-34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다	45:1-28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가다	46:1-7, 28-34, 47:1-12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다	48:1-2, 8-21
야곱의 죽음	49:29-50:14
요셉의 죽음	50:15-26

이 표는 위에서 제시했던 창세기의 구조를 고려하여 창세기를 크게 다섯 개의 큰 주제 제목(topical title)으로 분류한 후 각 주제 제목에 몇 개의 소제목(heading)을 붙여 본 것이다. 신약성서와는 달리 구약성서는 자료를 조직화할 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지 않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직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문맥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여 성서의 메시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 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몇 군데의 구절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2장 4절-25절 :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로 분리워지는 부분인데 1장과 2장 사이의 명백한 모순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으며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줄 때 어린이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배제시

켰다.

4장 13절-24절 : 4:13-15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는 내용인데 물론 신학적으로야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배제시켰고 4:16-24은 단지 가인의 후손에 대한 정보만 가지기 때문에 생략했다.

5장은 단순한 아담의 계보로 생략시켰으며 특히 6:1-4은 초자연적인 존재, 거인(네페림) 등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이기는 하나 번역과 설명이 까다롭기 때문에 생략했다.

7장 1절-10절 : 1-5은 노아가 방주에 태운 동물의 수가 6:19-20과 비교하여 명백히 불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했고 6-10은 6:11-15과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했다.

8장 20절-22절 : 약간의 정보가 9:8-16에서 반복되었고, 또 정결한 짐승을 언급한 7:1-5이 이미 생략되었기에 배제시켰다.

이 외에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11:27-32(테라의 후에), 12:8-20(아내를 누이로 가장한 사건), 14:1-16(롯을 구한 기사), 16장(하갈과 이스마엘), 20장(아내를 누이로 가장한 사건), 21:22-34(브엘세바의 유래) 등이 생략되었고, 야곱 이야기에서는 이야기 전개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26장(이삭과 아비멜렉 관련 기사), 29:31-30:24(야곱의 아들들), 34장(디나 사건) 등이 생략되었고,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요셉의 이야기와 관련이 없는 38장(유다의 아들들과 다말 사건), 49:1-28(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이 생략되었고 39장은 매우 흥미로우나 어린이에게 설명이 어려워 생략되었다.

4. 맺는 말

성서를 번역하는 목적은 특별한 독자들에게 성서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성서의 메시지를 잘 적용시킬 수 있게 만드는 데에 있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성서 번역은 어린이에게 성서의 메시지를 잘 이해시키고 그 성서의 메시지대로 살게 만드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에게 적당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는 어린이에게 적합하면서도 성서의 주제를 잘 전달하는 본문 구절들이 선택되는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고려되어야만 한다.

어린이를 위한 성서 번역이 잘 수행될 때 성서는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열린 책이 될 것이다. 모쪼록 금번 대한성서공회에서 계획한 어린이

성경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 에게 열리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